3 -6 _Layout 1 2018. 5. 23. 2:50 Page 196

김해 대성동 고분군 _ 2호분 종잡판갑

3 -6 _Layout 1 2018. 5. 23. 2:50 Page 197

06

가야 갑주

Vol. 3

Ⅰ. 머리말

Ⅱ. 금관가야의 갑주
1. 종장판갑의 등장
2. 종장판갑의 전개
3. 찰갑과 방형판갑

Ⅲ. 대가야 · 아라가야의 갑주
1. 찰갑의 정형화와 확산
2. 대금식갑주와 교류

Ⅳ. 갑주 부장의 의미와 변화
1. 갑주의 용도
2. 갑주부장의 변화
3. 갑주문화의 특징

Ⅴ. 맺음말

3 -6 _Layout 1 2018. 5. 23. 2:50 Page 198

가야 갑주

Ⅰ. 머리말

갑주(甲冑)란 한자 뜻 그대로 갑옷과 투구를 말한다. 갑옷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체의 상반신을 감싸는 보호구(保護具)이며,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형태의 보호구이다. 갑옷과 투구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충격에서 인체(人體)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다.

갑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인류가 처음으로 금속기를 사용하면서 갑주도 금속으로 제작하였다. 아마 금속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가죽이나 나무로 만든 갑주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인류사의 시작과 동시에 인간은 갑주를 고안하여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갑주가 만들어졌다. 철기의 사용이 보편화할 무렵이 되면 기존의 유기질제의 갑주도 점차 철제로 전환하였다. 물론 이것은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였다. 철기의 사용은 무기를 비롯하여 일상의 도구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농업생산량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투여된 노동력에 비해서 생산량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생산의 풍요로움은 부를 축적한 소수의 특권 계층을 낳게 마련이었다. 이것은 곧이어 계급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위계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체가 등장하였다. 새롭게 성장한 지역의 정치체는 한반도 사회를 급속도로 발전시킨 주체였다. 이러한 사회구성체의 발전 과정은 필연적으로 주변 정치체와의 이익다툼을 초래하였다. 이것이 삼한시대 이후의 분쟁, 정치체의 이익다툼, 곧 전쟁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다.

삼한시대 이후 주변 정치체에 대한 무력을 동원한 분쟁 해결 방식은 필연적으로 무기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무기의 발달은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하여 극한의 살상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재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철기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마살상을 위한 강력한 무기들은 대량으로 제작되었다. 삼한시대(3세기 무렵)의 대형목곽묘에서는 철촉이나 철모 등이 다량으로 부장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두)대도가 지배층에 위신재로 정착될 무렵에 삼국시대 무장형태의 틀이 완비되었다.

3 -6 _Layout 1 2018. 5. 23. 2:50 Page 199

4세기 무렵부터는 이전의 무기류 발달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무구류가 획기적으로 발달하였다. 사실 철제 무기류는 기능적인 면을 빼고 본다면 형태상으로 상당히 단순한 편이다. 철의 내구성을 강화하여 선진무기의 형태를 모방하면서 기능을 증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철제 갑주류는 인체의 곡률을 최대한 감안하여 실용적인 디자인을 하지 못하면 착용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철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과 함께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야만 완성할 수 있는 당대 최고기술이 혼합된 기술의 결정체인 것이다.

삼국시대의 철제 갑옷은 판갑과 찰갑으로 나누어진다. 판갑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는데 종장판갑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의 갑옷이 4세기와 5세기 전반까지 유행하였다. 종장판갑은 영남지방을 주요 분포지역으로 하는 대단히 지역성이 강한 유물이다. 대개의 갑옷들이 지역을 초월하여 파급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장판갑의 분포지역은 영남지방을 벗어난 사례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종장판갑과 거의 동시기에 찰갑도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4세기 무렵의 영남지방 찰갑은 정형화하지 못한 다소 조잡한 수준이었다. 찰갑을 구성하는 소찰들이 비교적 대형이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정형화하지 못한 4세기대 무렵의 찰갑을 '초기찰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초기찰갑의 단계를 지나 5세기대에 접어들면서 찰갑은 요찰을 비롯한 부속구가 갖추어지면서 정형화한다.

갑옷과 함께 투구도 철제로 제작되었다. 투구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감싸는 보호구이면서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부가되었다. 투구는 착장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로서의 기능도 같이 하였다. 우리나라 투구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세로로 긴 지판을 횡으로 이어붙인 형태이다. 소위 종장판주(縱長板冑)라고 하는 것이다. 종장판주는 영남지방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유행하였다. 5세기의 일본 열도의 투구가 충각부주나 차양주라는 점과는 구별되는 현상이다.

4세기대의 주요 갑옷이 종장판갑이라고 한다면, 5세기 이후가 되면 찰갑이 가야의 주력 무장구로서 채용되어 유행하였다. 철제 찰갑의 선진지역인 고구려의 영향하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찰갑은 고구려군의 남정이 있고난 이후 영남지방에 신속하게 확산되었다. 찰갑 채택의 동인(動因)이 되는 고구려군의 남정 이후 영남지방에도 찰갑을 주무장으로 하는 중장기병이 채용되면서 군사력의 주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때부터 찰갑은 지배층의 위신재로서 주변으로 확산되었다. 신라지역을 비롯하여 고령 지산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성의 송학동고분 등에서 정형화된 찰갑이 나타났다. 물론 금관가야의 영역인 부산의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에서도 이러한 변화 과정이 범영남적인 현상으로서 그대로 나타난다.

5세기 이후의 찰갑은 영남각지의 대형 무덤들을 중심으로 부장되었고,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찰갑과 함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는 대개 만곡종장판주가 함께 조합되는 경우가 많다. 이점은 일본 열도의 찰갑이 차양주 등의 대금식 투구와 조합되는 현상과는 구별된다. 한편 찰갑이 지배층의 일반적인 보호구로 채용되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5세기 중엽부터 생산의 중심이 왜로 판단되는 대금식갑주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대금식갑주는 오래 전부터 제작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치적인 해석 등 한일 갑주 연구에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으로서 취급되어져 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최근까지 연구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들 자료를 통하여 향후 한일갑주연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해보고 싶다. 아울러 고령 지산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김해 대성동고분군 등 소위 가야권의 대형 분묘들에 대한 고고학적 가치를 갑주를 중심으로 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영남지방에서 출

토된 갑주 이외에도 필요시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일본열도의 자료들도 살펴 볼 것이다. 가야 갑주에 대한 특질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의 갑주와의 비교가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필자의 논지전개보다는 최근 갑주에 대한 연구성과를 최대한 소개하여 최근의 연구동향과 함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금관가야의 갑주

금관가야는 시공간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이 사실이다.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고자료를 기준을 한다면 유효한 자료로서 파수부노형토기와 통형동기, 외절구연고배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유물의 출토범위를 기준으로 본다면 금관가야의 범위는 대개 김해를 중심으로 부산정도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전제로 하면 금관가야의 판갑과 관련된 유적은 대성동고분군, 양동리고분군, 복천동고분군이 주요 검토대상이 된다.

철제의 종장판갑이 등장하여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4세기대의 금관가야지역을 중심으로 종장판갑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종장판갑의 등장

1) 종장판갑의 태동

〈그림 1〉 석암리 219호분 칠소찰

삼국시대 이전에도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갑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전한대로 편년되는 철제 찰갑이 보고된 바 있고, 그 이전의 혁제 갑주도 다수가 알려져 있다. 한반도에서는 석암리 219호분〈그림1〉과 다호리 2호묘에서 칠소찰편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유물은 대체로 중국의 문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갑주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3세기 후반대부터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구가 상호보완적으로 발달한다는 점에서 삼한후기 영남지방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다. 즉 목곽묘의 등장을 즈음한 시기 이후의 영남지방의 역동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영남지방에서는 발전된 철기제작기술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방어구인 판갑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의 발굴성과로 보는 한 철제의 종

장판갑은 4세기 전엽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이는 철촉 등 제반 무기류의 변화양상으로 볼 때 비교적 안정된 연대관으로 볼 수 있다.

2) 삼한시대의 갑옷

영남지방은 2세기 후엽경 목곽묘가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분묘에 부장되는 유물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특히 무기류 부장의 증가는 목관묘단계와 비교해서 가히 폭발적인데, 이와 같은 무기류 부장의 증가는 당시의 사회정황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즉 삼한시기의 변화 중에서도 2세기 후엽경에 나타난 사회변화는 이전 단계의 변화와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삼한소국내의 자체적 발전양상도 무시할 수 없지만 동북아 전체의 정세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대륙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한반도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삼한소국의 대응책은 경제적으로는 교역체제의 재편과 안전한 교역체제의 확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으로 나타나게 된다.

판갑은 4세기대부터 처음으로 영남지방에서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상반신보호구로서 갑옷의 역사는 중국대륙의 경우 은(殷)나라까지 소급되며, 그 이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적대적 관계에 대비한 보호구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실물자료는 4세기대 이후의 철제뿐이며 이전의 자료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실물자료로서는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석암리 219호분의 혁제 소찰자료와 다호리 2호묘에서 수습된 1매의 혁제 소찰이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내에도 최소한 기원전후한 시기 이전에 이미 혁제의 피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포동 31호분에서는 3세기 후엽대의 목갑으로 추정되는 유기물질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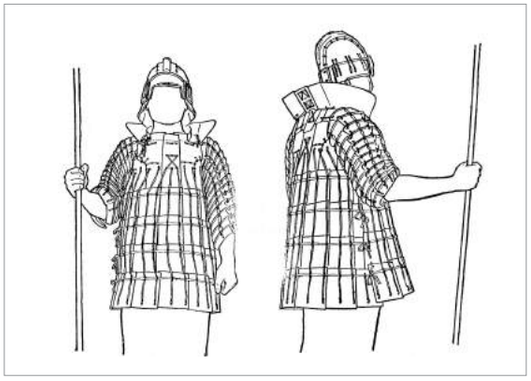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철제 판갑이 등장하기 이전의 한반도내에서도 혁제 내지 목제의 갑옷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목관묘가 주로 사용되던 2세기 중엽경까지의 유물부장량을 본다면 무기류가 점하는 비율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다지 우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목곽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삼한소국내의 피갑(皮甲)의 수요는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량의 제작이 이루어졌을 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1) 유기질제 갑옷

삼한지역내에서 사용된 피갑은 아마도 당시의 교역체제를 염두에 둔다면 대륙의 것을 직접 수입 내지 모방 ·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삼한지역내의 피갑의 기본구조는 대륙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륙의 피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륙의 피갑중에서 주목할 것을 진시황의 도용(陶俑)에 묘사된 갑옷들과 추현증후을묘(隨縣曾侯乙墓) 출토의 피갑(皮甲)(그림 2)이 있다.

먼저 진시황의 도용에 묘사된 갑옷들은 개개 신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갑옷이 묘사되어 있는데 재질은 혁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단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는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음이 특징이다. 그리고 추현증후을묘(隨縣曾侯乙墓)에서 출토된 피갑은 상태가 양호하여 전모를 알 수 있는데 수미부(首尾部)까지를 포함



〈그림 2〉 증후을묘(曾侯乙墓) 출토 피갑 모식도

〈그림 3〉 몽촌토성출토 골제 찰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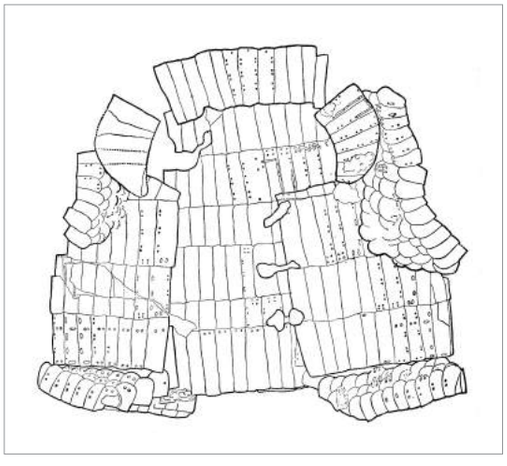
하여 7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륙의 고고자료 중에는 다수의 피갑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반도,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피갑이 확인된 예가 거의 없다. 단지 다호리 2호묘에서 소찰편이 1점 확인되었으나 가죽부분은 부식되어 남아 있지 않고 칠흔적만 잔존한다. 소찰의 네모퉁이에는 끈을 끼우기 위한 구멍의 흔적이 각 1개씩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보통 2개의 구멍이 나란히 뚫어져 있는 소찰편과 비교할 때 갑옷의 소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일단 피갑의 일부분으로 보고자 한다. 상기한 대륙의 피갑과 국내의 피갑자료를 감안한다면 일단 국내에도 피갑이 유입되었고, 또 일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편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골제 찰갑(그림 3) 역시 다양한 재질의 유기질제 갑옷이 존재했음을 입증한 자료이다. 이러한 유기질제의 갑옷은 추가로 더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2) 철제 갑옷

대륙에서 처음으로 갑옷이 철제로 전환되는 시점은 전한대로, 내몽고자치구에서 확인된 呼和浩特二十家子漢城 출토의 철개갑(鐵鎧甲)(그림 4)이 가장 대표적이다. 내몽고자치구의 呼和浩特二十家子漢城의 저장공에서 확인된 철개갑은 형태상 추현증후을묘(隨縣曾侯乙墓) 출토의 피갑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견갑(肩甲)이 갖추어져 있음이 특징적이다. 견갑은 상원하방형의 소찰이 중첩되어 어깨부분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허리부분에는 상갑(裳甲)도 갖추어져 있는데 견갑의 소찰과 배열이 같다. 대륙의 철제 갑옷은 이외에도 다수가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도용의 형태로 조사된 예가 많아 실제로 철제인지 의문스러움이 있다. 실물로서 확인된 것으로는 전한대의 것으로 滿城1號墓, 洛陽西郊M3023號



〈그림 4〉 내몽고 十二家子漢代城址 출토 철제갑

출토유물 등이 있다.

후한대의 것은 대부분 도용(陶俑)이나 화상석묘(畵像石墓)의 벽화형태로 남아 있어 실물자료를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륙에서도 철제의 갑옷이 대량으로 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남지방의 삼한시기에 철제 판갑이 제작된 증거는 전혀 없다. 4세기대 이후부터 철제의 판갑이 제작되는데 아마도 목곽묘단계 이후부터 철제판갑과 형태상으로 거의 유사한 피갑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단지 재질상으로 혁제이지만 형태상으로는 거의 4세기대 철제 판갑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2. 종장판갑의 전개

앞서 말했듯이 금관가야지역에서 종장판갑이 출토된 유적은 금관가야를 구성하는 중심집단의 묘역인 대성동, 복천동, 양동리고분군이다. 각 유적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종장판갑의 부장 현황

(1) 대성동고분군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 지배층의 무덤군으로 전기가야의 중심고분군이다. 가야의 성립과 전개, 성격, 정치사회구조를 해명하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1990년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발굴조사가 이어져 200여기 이상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금관가야의 왕묘를 비롯하여 다양한 신분층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무덤의 규모와 출토품의 질은 금관가야의 실체를 밝히는 자료로서 베일에 가려있었던 금관가야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대성동고분군의 발굴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문헌에 알려졌던 바와 같이 금관가야가 철의 왕국으로서 대륙과 열도를 상대로 활발하게 중계무역을 전개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대륙에서 유입된 금제대금구가 대성동 70호분, 88호분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왜제 위신재가 4세기대의 목곽묘에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에서 금관가야의 국제성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대성동고분군이 금관가야내의 여타 고분군과 차별화되는 현상으로서 금관가야의 최고지배층의 무덤군이었음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대성동 2호분 출토 종장판갑

대성동고분군에서 모두 6령의 종장판갑이 검출되었다. 출토된 유구는 대성동 2호분, 7호분, 39호분, 57호분, 93호분인데 이들 유구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호분의 경우 4세기 3/4분기에 해당하는 유구로서 부곽이 없지만 규모가 750×475㎝인 대형의 단독목곽묘이다. 무덤에서는 철정을 비롯하여 각종 마구류 및 통형동기 등 많은 유물이 검

출되었다. 그리고 이들 다양한 유물과 함께 피장자의 발치부분에 종장판갑이 부장되어 있었다. 판갑은 장식적인 요소가 강조된 것으로 금관가야의 종장판갑의 전성기에 제작된 것이었다.

7호분은 주곽 730×452㎝, 부곽 265×375㎝의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 유구의 규모도 대형이지만 깊이가 360㎝로 유구의 체적이 대단한 유구이다. 부곽에서 종장판주와 함께 판갑이 검출되었다. 유구의 연대는 대략 5세기 전엽으로 비정된다.

39호분의 주곽은 560×295㎝, 부곽 260×315㎝인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이다. 유구의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다소 작은 규모의 목곽묘에 해당한다. 주피장자의 안치 공간에는 경갑과 요찰이 놓여져 있고 몸통부는 공백으로 남겨진 상태였다. 아마도 유기질제의 갑옷을 착용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판갑은 주곽의 주피장자 좌측 하단에 놓여진 상태였다. 유구의 연대는 대략 4세기 후엽경으로 비정한다.

57호분은 목곽의 대부분이 훼손되었는데 너비가 350㎝이라는 점에서 장축의 길이를 600㎝전후가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유구의 남아 있는 부분에는 순장자의 인골 3구가 나란히 안치되어 있었고, 판갑은 이들 순장자의 좌측 하단부에서 훼손된 상태로 검출되었다. 한편 순장자의 머리부분에서 종장판주 5개체분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유물의 목곽상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93호분은 660×380㎝의 단독목곽묘이다. 유구의 바닥에서 순장자를 위한 갱이 확인되었다. 순장갱위에는 토기를 비롯한 유물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갑주류가 확인되었는데 마주와 종장판주, 그리고 판갑 2령이 검출되었다. 판갑은 최근에 복원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형상이 알려지고 있는데, 종장판갑의 원초형인 소매판이 부착된 형식으로 알려진다. 93호분에서 출토된 토기의 연대가 대개 5세기 2/4분기라는 점에서 종장판갑의 연대와 다소 괴리가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성동고분군에서 확인된 종장판갑은 6령이다.

(2) 양동리고분군

양동리고분군은 대성동고분군 세력이 금관가야의 맹주로 성장하기 직전까지의 대형 무덤이 조성된 곳이다. 그러므로 금관가야 직전의 구야국단계의 중심집단의 묘역으로 보아도 좋다. 235호분이 조성된 이후 이를 능가할만한 대형목곽묘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 대성동 29호분이 금관가야의 서막을 열면서 양동리고분군은 금관가야를 보위하는 집단으로 체제를 잡았다.

양동리고분군의 종장판갑은 78호분, 167호분, 321호분, Ⅳ-1호분에서 출토된 4령이 알려져 있다. 먼저 양동리 78호분 목곽묘는 유구의 규모가 495×210㎝인데 중형급에 해당한다. 출토유물은 등자, 재갈 등의 마구류, 만곡종장판주와 함께 종장판갑이 나왔다. 종장판갑은 대성동 2호분의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 전동부에 궐수문의 장식적인 요소와 함께 후동상부의 후경판의 형태는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제작방식은 거의 같다고 보아도 좋다. 4세기 후엽의 대성동 2호분과 비교한다면 78호분의 연대는 5세기 전엽으로 다소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

167호분은 454×230㎝ 규모의 중형급 목곽묘이다. 역시 5세기 초 무렵의 무덤으로 종장판갑은 전동판에 고사리문이 장식된 형식이다. 판갑의 부속구인 측경판이나 후경판은 78호분과는 다소 다른 형식이다.

321호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명세를 알 수 없다. 종장판갑은 다른 무덤의 것과 달리 전동부의 장식이 없으며, 측경판이 부자연스럽게 큰 형태이다.

Ⅳ-1호분은 이혈주부곽식 목곽묘로 주곽은 580×360㎝이며, 부곽은 조사가 되지 않아서 자세한 명세를 알 수 없다. 유구의 입지면에서 기존에 비해서 높은 곳에 위치한다. 출토유물에서 보면 대략 4세기 후엽경으로 보인다. 종장판갑, 종장판주, 요찰, 경갑 등 다양한 갑주류가 출토되었다. 아울러 통형동기, 통형철기 등 위신재로 판단되는 유물도 다수가 있다는 점에서 양동리고분군집단내에서 위계상으로 정점에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동시기의 대성동고분군과 비교할 때 격차가 현저함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림 6〉 양동리 78호분 출토 종장판갑

출토된 종장판갑은 양동리고분군 출토 판갑에 비해서 여러 모로 조잡한 수준의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지판을 덧대어 붙인 점과 곳곳에 수리흔적이 보인다는 점에서 위신재라기보다는 별도의 기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하튼 종장판갑으로서는 양동리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판갑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 7〉 복천동 10호분 출토 종장판갑

(3) 복천동고분군

복천동고분군은 금관가야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력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대성동고분군과 동질성을 보이는 유물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무덤의 형식이나 출토유물에서 이질적인 면도 같이 보인다는 점은 일차적으로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복천동고분군도 양동리고분군과 마찬가지로 외래계 유물의 부장량에서 대성동고분군과는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따라서 복천동고분군도 역시 대성동고분군과는 위계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성동고분군과 위계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은 같지만 복천동고분군은 양동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과의 관계와는 다른 의미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본다. 양동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은 상생적 경쟁관계였던 것과는 달리 복천동고분군은 상생적 계약관계로 이해하고자 한다. 양 고분군의 상호간에 보이는 동질적인 요소보다는 이질적인 면을 부각해서 본다면 복천동고분군은 대성동고분군, 양동리고분군집단과는 태생적으로 달랐다고 봄이 합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종장판갑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복천동고분군에서 확인된 종장판갑은 모두 16령이지만 출토된 무덤은 10기로서 복수부장된 경우가 다수 있다. 복천동고분군이 아닌 곳에서 종장판갑의 복수부장이 확인된 경우는 구정동 3곽과 대성동 93호분의 2례가 있다. 그러므로 종장판갑의 복수부장은 복천동고분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복수부장의 경우 2령이 대부분이며, 86호분의 경우에 4령이 부장되기도 하였다.

복천동고분군에서 보이는 종장판갑은 원초형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종장판갑이 망라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복천동고분군집단은 종장판갑을 가장 활발하게 제작하여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종장판갑뿐만 아니라 찰갑도 동시에 공유한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복천동고분군에서의 이러한 무구류의 집중부장 양상은 복천동고분군집단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무구류만 아니라 무기류도 양과 질에서 탁월한 수준을 보인다. 즉 복천동고분군집단은 군사적 성향이 강한 전사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종장판갑의 부장 의미

앞서 언급한 3개 고분군을 중심으로 금관가야계의 종장판갑이 출토되었다. 물론 전퇴래리 판갑 등을 비롯해서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은 판갑이 몇례 더 있다. 출토지를 알 수 없는 유물의 경우 직접적인 비교자료라기보다는 보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금관가야지역을 제외한다면 종장판갑은 경주, 포항, 울산, 기장에서 발견되었다. 신라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10령 미만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 신라권의 종장판갑은 장을 달리해서 살펴볼 것이다.

각 고분군에서 출토된 판갑은 기본적으로 종장판갑이라는 형식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고분군별 출토량을 볼 때 복천동고분군에 집중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복천동고분군에서 확인된 종장판갑은 모두 16령이지만 출토된 무덤은 10기로서 복수로 부장된 경우가 다수 있다. 종장판갑의 복수부장은 구정동 3곽과 대성동 93호분에서 확인된 것을 제외하면 복천동고분군에서 집중해서 나타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복천동고분군의 종장판갑은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볼 때 당시의 영남지방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대성동고분군에서는 6령의 종장판갑이 확인되었다. 대성동고분군에서 처음 종장판갑이 나타난 것은 대성동 2호분으로 4세기 3/4분기부터이다. 그러나 이보다 늦은 유구인 39호분에서 확인된 종장판갑은 후경판이 경갑형인 것으로 형식상으로 가장 이른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복원된 93호분에서 소매판이 부착된 원초형의 판갑이 확인되었다. 대성동 93호분은 토기유물 등에서 볼 때 5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데 연대상의 유물상호간에 괴리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8〉 구어리 1호분 피갑 노출 상태

종장판갑 이외에도 39호분에서는 피장자가 갑옷을 착장한 채 안치되었는데 몸통부분이 빠진 모습으로 경갑과 요찰이 검출되었다. 이것은 유기질제 갑옷의 존재를 상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대성동 1호분 부곽, 복천동 2호분(동), 복천동 21호분, 구어리 1호분 부곽 등의 예가 있다. 경갑과 요찰, 그리고 유기질제 찰갑의 조합은 당시에 비교적 채용빈도가 높은 갑옷의 착용 방식이었다. 이러한 갑옷의 착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몸통부분의 갑옷이 찰갑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성동 39호분의 예를 본다면 유기질제 찰갑과

종장판갑을 동시에 소유한 피장자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경갑, 요찰이 공반된 유지질제 찰갑의 경우는 금관가야와 관련된 유적과 유구에서 자주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어리 1호분은 경주인근에서 조사된 유구이지만 김해식 이혈주부곽식 목곽묘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점은 금관가야의 중심, 즉 대성동고분군을 중핵으로 하는 세력의 주력 무장구가 경갑, 요찰을 갖춘 유기질제 찰갑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대성동고분군에서 보이는 종장판갑의 존재는 어떠한 의미일까? 복천동고분군의 종장판갑의 예에서 알 수 있지만 종장판갑의 생산과 부장의 중심은 부산지역임이 분명하다.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종장판갑의 부장은 대성동 2호분부터이다. 그리고 가장 이른 형식의 종장판갑은 유물을 실견하지는 못했지만 대성동 93호분에서 확인된 소매판이 부착된 원초형의 판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성동고분군의 종장판갑은 출현 시기, 출토량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자생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갑, 요찰을 갖춘 찰갑이 오히려 대성동고분군의 주력 무장구였고, 종장판갑은 외래적, 아마도 복천동고분군집단으로부터 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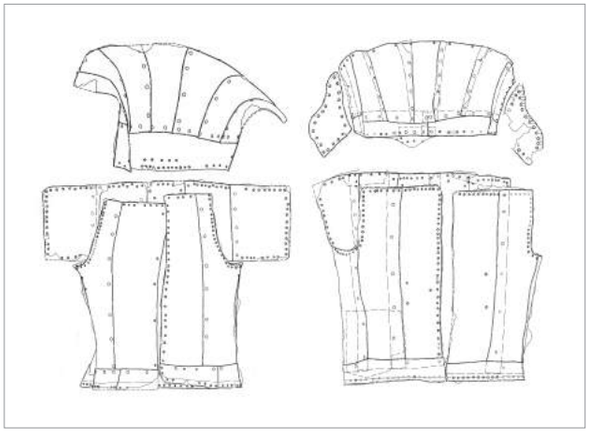
양동리고분군의 종장판갑도 역시 양동리고분군집단에서 주도적으로 고안해서 만든 것으로 보기 힘들다. 같은 이유이지만 4세기 후엽대의 유구에서 종장판갑이 반출되기 시작한다는 점, 4점의 종장판갑 가운데 1점을 제외하면 주로 5세기 전엽에 해당한다는 점도 역시 양동리고분군의 종장판갑을 외래요소로서 보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성동고분군, 양동리고분군 등의 금관가야의 주도 집단은 종장판갑을 외래적으로 받아들인 객체적 입장이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종장판갑을 제작 유포한 주체적 세력은 어디일까?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곳은 복천동고분군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종장판갑, 가장 많은 출토량, 다양한 형식 등 여러 면에서 종장판갑의 생산과 부장의 중심지역으로서 복천동고분군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복천동고분군집단의 종장판갑은 자생적인 산물로서 간주할 수 있을까?

3) 종장판갑의 계통문제

판갑의 계통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고구려와 연결시켜 보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 즉 구정동 3곽의 경갑(頸甲) 형태가 고구려 벽화고분에 묘사되어 있는 경갑과 유사함에 착안해서 고구려의 영향을 지적한 견해와 덕흥리벽화고분의 판갑묘사장면에 입각해서 고구려적 요소일 가능성을 지적한 송계현의 견해가 있었으나, 송계현은 이를 수정하여 고구려지역의 벽화고분중에서 덕흥리벽화고분에서 묘사된 종장판계열의 판갑은 시기적으로 영남지방의 종장판계 판갑의 원류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하고, 오히려 가야지역의 종장판계열 판갑이 고구려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복천동 38호분에서 출토된 찰갑과 종장판주

〈그림 9〉 복천동 38호분 출토 종장판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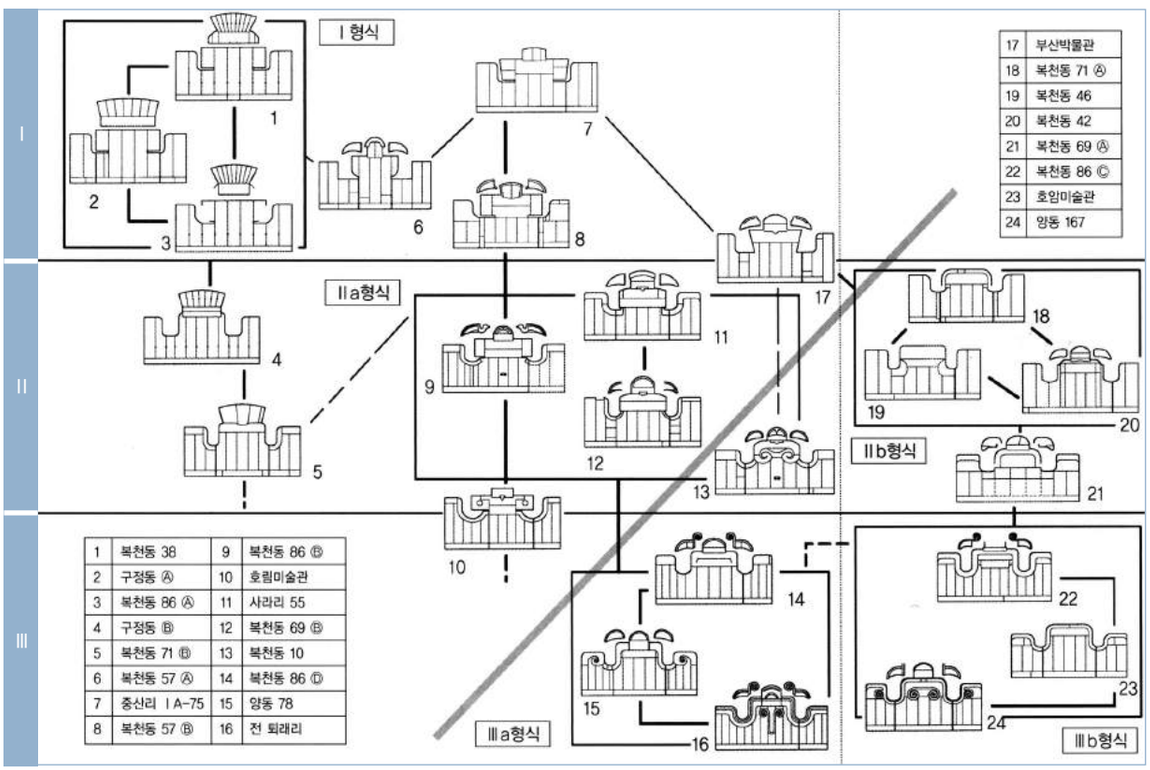


〈그림 10〉 구정동 3곽 출토 종장판갑

만이 고구려벽화고분에 묘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고구려의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송계현 2002).

최근 신경철은 영남지방 판갑의 발생을 4세기대를 전후한 시기, 영남지방의 긴장관계의 소산으로 이해하고, 종장판계열의 판갑이 영남지방, 특히 낙동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방계문물의 김해지역 파급설과 연관된 것이다.

종장판계열의 판갑이 영남지방에서 자생하였다고 하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일치된 견해에 도달했다. 하지만 판갑의 등장배경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에는 아직도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송계현은 새로운 무기류의 발달에 따른 방어용 무구의 필요성과 함께, 발달된 철단조기술을 철제판갑의 직접적인 출현계기로 파악하였고, 반면에 신경철은 4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나타나기 시작한 영남지방의 긴장관계를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긴장관계의 계기를 부여족의 남하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인이외에도 3세



〈그림 11〉 종장판갑의 형식과 지역성(사선 위 : 경주 · 울산식, 아래 : 부산식)(송정식 · 이유진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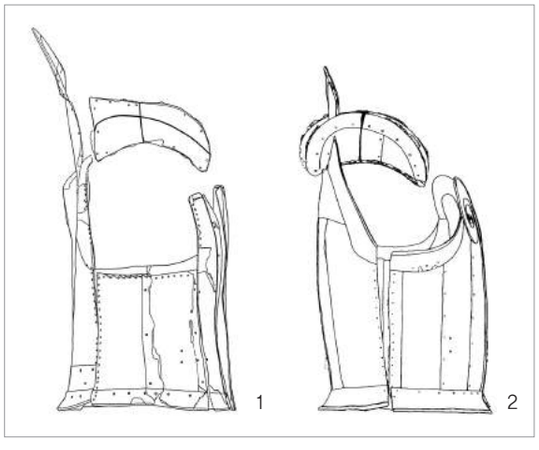
기대를 거치면서 조성된 동북아의 정세변화와 삼한 제소국들의 성장과정에서 빚어진 국지적 분쟁들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삼한후기를 거치면서 발달한 공격용 무기류의 등장이 기존의 방어용 무구류의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경철은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판갑이 경주지역에 파급되어간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경주지역에서 처음으로 판갑이 제작되어 김해지역, 엄밀히 말한다면 부산 복천동집단으로 파급되어간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신라지역의 와질토기문화가 대단히 오랜 기간동안 지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감지됨으로 이에 대한 입장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신라지역 출토 판갑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평가되는 구정동 3곽 출토 2점(그림 10)의 연대는 복천동 38호분 출토유물과 거의 동시기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판갑은 금관가야의 본류인 김해지역에서 고안되었다기 보다는 낙동강의 동안지역에서 만들어져 금관가야지역으로 파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기본적인 판갑의 제작원리면에서 혁철로 제작된 복천동 38호분의 판갑이 가장 고식의 요소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4) 종장판갑의 성립

영남지방(낙동강 동안지역)의 종장판계열 판갑의 경우 대체로 외형에 있어서 통일된 모습을 지니는데 가장 공통적인 현상은 5세기 중반까지 모든 판갑이 지판으로 종장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천동 38호분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판갑이 가죽끈이 아닌 리벳팅의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외형에서는 후동판 상단에 후경판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의 발굴성과에서 갑주류의 부속구로서 파악되어온 측경판의 용도에 대한 해답은 피갑과 판갑의 유사성을 방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측경판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복천동 57호분과 양동리 78호분의 것이다(그림 12). 이 중에서 후경판에 부착되어 경갑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隨縣曾侯乙墓의 피갑(皮甲)에서 보이는 영부(領部)와 유사하며, 呼和浩特二十家子漢城 출토의 철개갑의 영부(領部)와도 외형상에서 유사점이 인정된다. 이런 양자의 유사점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첫째 영남지방의 판갑이 呼和浩特二十家子漢城출토의 철개갑의 영향하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과 둘째는 영남지방이 판갑이 구조적인 면에서 대륙의 경우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외형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영남지방에 유입된 피갑의 변화속도가 극도로 완만하여 대륙적인 요소를 계속적으로 保持한 채 철제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다.



〈그림 12〉 측경판 부착 사례(1. 복천동 57호분, 2. 양동리 78호분)

판갑은 등장과 동시에 영남지방 지배계층의 중요한 개인방어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위에 대한 상징적인 용품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판갑

의 등장으로 피갑의 제작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4~5세기대의 유구에서 피갑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판갑의 사용과 함께 피갑의 사용도 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갑의 등장 이후 제작되어진 피갑의 형태가 찰갑의 형식을 취하였을지, 아니면 판갑의 형태로 제작되었을 지는 자료의 미발견으로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덕흥리 벽화고분의 내용을 들어 종장판 형태의 판갑으로 보고, 이것을 혁제 판갑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4세기 전반대 이후의 판갑은 4세기 후반대에 유입되는 찰갑에 의해 그 위치가 점차로 주곽에서 부곽으로 밀려 나게 된다. 그러나 판갑은 4세기 중엽 이후 상위신분의 권위의 상징물로서 극히 장식성이 강조되고 있다. 복천동고분군에서는 4세기 중후반대의 유구에서 다량의 판갑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의 판갑이 장식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 판갑이 실용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경우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복천동고분군에서 출토된 판갑이 총 16령에 이르고 있으나, 대성동고분군의 경우 도합 6령에 불과하다. 이것은 김해지역과 복천동지역과의 집단간의 역할상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점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3. 찰갑과 방형판갑

금관가야의 갑옷에는 종장판갑과 함께 찰갑도 같이 만들어졌다. 종장판갑이 금관가야의 고유의 갑옷이 아니라 외래요소로서 유입된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금관가야도 종장판갑 이전의 갑옷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목제나 가죽제(피갑)이 형태였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유기질제 갑옷이 당시에는 더 보편적인 형태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남겨진 상태의 철제 갑주만이 연구대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큰 틀에서의 가야 갑주의 모습이 다소 왜곡될 수도 있을 듯하다.

1) 찰갑의 등장

금관가야의 찰갑, 즉 4세기대의 부산김해지역의 찰갑은 어떠한 형태였을까? 가장 잘 알려진 이 시기의 찰갑은 복천동 38호분 출토품이 있다. 복천동 38호분에서 출토된 찰갑은 소찰이 10×4.5㎝가량의 비교적 대형이며, 경갑이 구비되지 않은 점, 상하유동성이 미비한 연결방식 등으로 대륙의 소찰갑(魚鱗甲)계통으로 보기도 하였다(송계현 2002). 최근 해당 유물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소찰의 중첩방식에서 외중식으로 상하유동성이 고려된 찰갑이며, 소찰 가운데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소찰은 단면이 외반하는 형태로서 요찰로 보고 신찰과 상

〈그림 13〉 복천동 38호분 찰갑 재현품

【표 1】 영남지방 초기찰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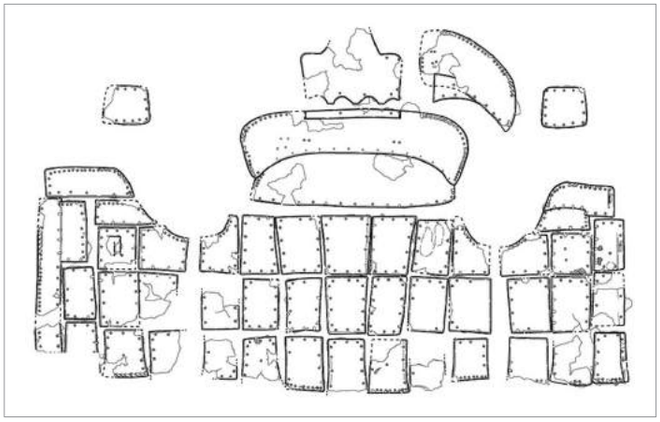
연번	유구	요찰		동찰	경갑	공반갑주	유형
		단면	평면	평면			
1	복천동 38호분	외반	장방형	상원하방	×	판갑, 투구	
2	복천동 64호분	외반	장방형	상원하방	×	×	
3	대성동 1호분	일자	상원하방	상원하방	○	투구	
4	대성동 2호분	'S'	상원하방	상원하방	○	판갑, 투구	
5	대성동 3호분	일자	상원하방	상원하방	○	투구	
6	대성동 7호분	일자	상원하방	상원하방	○	×	
7	대성동 39호분	일자	상원하방	×	○	판갑, 투구	
8	대성동 47호분	일자	상원하방	×	○	투구	
9	대성동 57호분	일자	상원하방	×	○	판갑, 투구	
10	양동리 107호분	일자	상원하방	×	○	투구	
11	조영 I B-60호분	외반	장방형	상원하방	×	×	
12	월성로 가-29호분	외반	장방형	상원하방	×	×	
13	임당 G-126호분	×	×	상원하방	×	×	?
14	구어리 1호분	일자	상원하방	×	○	×	
15	임당 G-5 · 6호분	'S'	상원하방	상원하방	○	투구	
16	하삼정 26호분	일자	상원하방	상원하방	×	후경, 측경판	
17	중산리 I B-17호분	'S'	상원하방	?	○	투구	

찰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4세기대의 초기찰갑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몸통부분을 철제 소찰로 감싸는 형태의 찰갑도 있지만 한편으로 몸통부분은 철제가 아닌 피갑으로 하고 경갑과 요찰만을 철제로 한 형태의 찰갑도 존재하였다. 이것은 경갑이나 요찰이 찰갑의 부속구라는 점에서 몸통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찰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다. 대성동 39호분, 복천동 21 · 22호분, 구어리 1호분 등에서 몸통부분이 빠진 상태의 경갑과 요찰이 확인된 바 있다. 두가지 형식의 4세기대 초기찰갑은 정형화되지 못한 시현기의 것들로서 지역에 따라 제작기법도 다양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 하삼정 26호분에서 출토된 찰갑을 들 수 있다. 이 찰갑은 다른 지역의 찰갑과 달리 세장한 형태의 소찰을 외중식으로 연결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종장판갑의 후경판과 측경판을 부착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찰갑과 판갑의 제작방식이 결합한 것으로 당시에 다양한 방식의 갑옷제작이 시도되고 있었음을 보는 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2) 방형판갑의 문제

한반도에서 방형판갑은 복천동 64호분의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방형판갑일 가능성이 높은 유물로는 대성동 1호분, 88호분 출토품이 있다. 방형판갑은 왜의 대금식판갑이 정형화되기 이전의 시원형으로 보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그림 14〉 복천동 64호분 출토 방형판갑

일본연구자들의 대금식갑주와 관련된 연대관을 보면 대금식판갑은 375년 이후부터 등장하였다고 보는 입장과, 396년 고구려남정과 관련해서 보고자 하는 입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이 강한 편이다. 이를 따른다면 방형판갑은 375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 된다. 사실 일본의 경우 대금식판갑을 고분시대 중기의 지표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고분시대 중기를 설정하는데 375년이라는 기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왜의 기내정권과 깊은 교류관계에 있었던 금관가야지역에서 검출된 방형판갑은 열도제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복천동 64호분 출토품은 4세기 중엽의 이른 단계에 해당한다. 묘형을 본다면 복천동고분군의 목곽묘와는 이질적인 구조이다. 오히려 대성동 18호분과 유사한 구조와 유물부장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복천동 64호분은 대성동고분군과 관계된 유구로 본다. 즉 방형판갑은 금관가야와 관련된 유구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천동 64호분 출토품은 일본측 자료와 비교하여도 시간적으로 결코 늦은 단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주목해 보아야할 자료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복천동 64호분의 자료를 처음 소개하면서 이를 금관가야의 전통적인 갑옷이었고, 이는 백제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된 것이 아닌가 추정한 바 있었다(김영민 2000). 앞으로 방형판갑의 제작지 문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음이 분명하다.

영남지방에서 출토된 가장 늦은 시기의 방형판갑은 대성동 1호분 부곽 출토품이다. 5세기 전엽까지 대금식판갑이 아닌 방형판갑이 부장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금식판갑의 등장시점을 5세기 전엽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성과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준현 2013). 앞선 언급한 일본의 연구성과와 비교한다면 한반도와 열도간 교차연대의 안정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교차연대의 안정화를 통하여 방형판갑과 관련된 기원문제와 대금식판갑의 등장시기 문제는 한일연구자간의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Ⅲ. 대가야 · 아라가야의 갑주

후기가야라는 용어는 전기가야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런데 후기가야 이전을 금관가야라고 불렀기 때문에 후기가야라는 말은 다소 모순을 가지는 용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후기가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함안의 아라

가야, 고령의 대가야를 통칭한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고성의 소가야, 옥전의 다라국 등도 여기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후기가야의 시작은 금관가야의 정치력이 현저하게 약해지면서 서부경남지역의 제정치세력이 활성화되는 5세기부터로 한다. 즉 후기가야의 시작점은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기존의 김해의 금관가야의 주변 장악력이 와해되고, 서부경남의 대외교섭력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1. 찰갑의 정형화와 확산

한반도에서 철제 찰갑을 가장 먼저 제작하여 주변으로 확장시킨 주체는 고구려이다. 고구려의 찰갑은 고분의 벽화에 잘 묘사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강변의 보루유적에서 실물이 확인된 경우도 있다. 대개 고구려의 철제 찰갑은 집안의 우산하 159호분과 만보정 242-1호분의 소찰 등으로 보아 3세기 무렵부터 도입되었다. 다만 찰갑의 본격적인 도입은 고구려의 주력군인 중장기병과 관계가 깊을 것이다. 고분 벽화의 행렬도에 묘사된 모습에서 대개의 병력이 갑옷을 착용하고 있는데 당시 갑옷이 모두 철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갑옷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1) 찰갑의 보편적 사용

가야지역에서 철제 갑주가 제작되기 시작할 무렵에 종장판갑과 함께 찰갑도 같이 제작되었다. 다만 정형화하지 못하여 지역에 따라 제각각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아마도 기존의 유기질제 갑옷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시제품이 제작되는 과도기였던 것 같다. 그런데 중장기병을 운용했던 고구려로부터 찰갑에 대한 정보는 꾸준하게 영남지방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찰갑의 효율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은 아마도 400년의 고구려군의 남정이었다. 고구려군의 강력한 중장기병의 위력을 접해 본 영남지방의 개별 정치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채용한 듯하다. 이때부터 정형화된 형태의 찰갑이 영남지방에 확산하기 시작한다.

〈그림 15〉 찰갑의 부위별 명칭(이현주 2016)

이 시기의 찰갑에 대해서는 이현주에 의해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된 바 있다(이현주 2016).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그의 글을 인용하여 논지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영남지방의 5세기 이후의 찰갑은 동환식인데 요찰의 단면이 'S'자형이나 'Ω'자형으로 나뉜다. 가야지역에서 확인되는 찰갑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소찰이 상원하방(上圓下方)형, 제3수결공을 가진 수결 1열의 요찰을 가진 외중식 구조, 각종 부속구를 갖춘 찰갑이

정형화한 5세기대 이후부터라고 한다.

5세기 전엽이 되면 김해지역의 칠산동 35호, 능동 25호, 대성동 11호 등에서 찰갑이 부장되어 찰갑의 출현 빈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찰갑을 구성하는 소찰 종류가 단순하고 S자형 요찰이 보이지 않는 등 초기찰갑의 전통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부산 복천동 34호 찰갑에서는 S자형 요찰과 함께 수결 2열식 제작기법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황수진 2011, 이현주 2014). 수결 2열식의 연결기법은 부속갑이나 투구의 볼가리개, 수미부가리개, 마갑 등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内山敏行 2008)고 평가되었지만, 현재의 자료로서는 동체를 감싸는 신갑 제작을 위해 개발되어 투구나 마갑으로 확산되었으며 동시기에 다발적으로 사용된 기술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5세기 중엽에는 복천동고분군 · 지산동고분군 · 도항리고분군 등 여러 대형분에서 S자형 요찰에 제 3수결공의 수결 1렬 구조의 정형화된 찰갑이 일반화한다. 특히 5세기 전엽부터 부산과 김해지역에 많았던 방형 소찰의 제작 전통은 계속되며, 특히 상박찰에 사용된 방형소찰의 경우 수결 2열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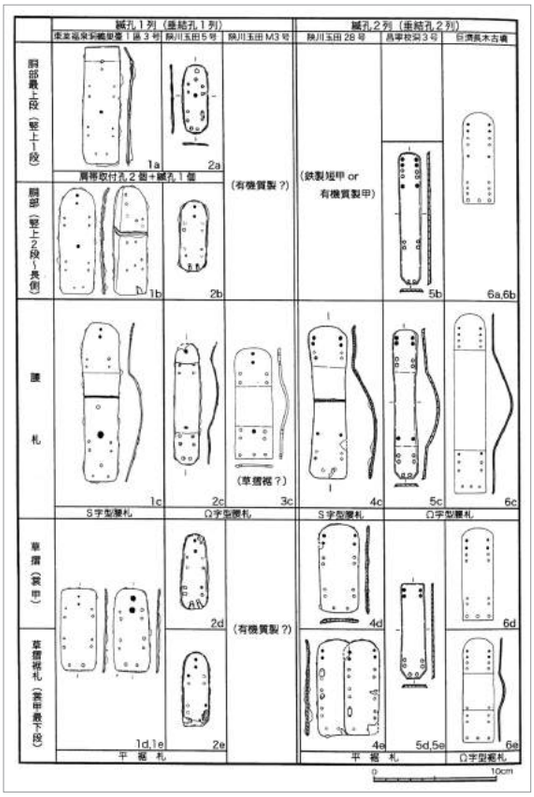
5세기 후엽이 되면 5세기 중엽의 정형화된 찰갑에 수결 2열, Ω자형 요찰, 동찰과 비율이 1,5:1을 넘어서는 긴 요찰이라는 요소가 추가된다. 수결 2열식 제작기법은 5세기 전엽에 처음 출현하였지만 5세기 후엽부터 6세기대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데 합천 옥전 28호분, 부산 연산동 8호분, 창녕 교동 3호분, 고성 송학동 1A-1호분, 거제도 장목고분 등이 그 예이다. Ω자형 요찰 역시 부산 연산동 8호분을 비롯하여 창녕 교동 3호분, 합천 옥전 5호분, 함안 도항리 8호분과 6세기 전엽 고성 송학동 1A-1호분, 거제도 장목고분 등에서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혁제 찰갑인 합천 옥전 M3경산 임당 7B, 조영 EⅢ-4호분 부곽, 부산 복천동 8호분 등의 요찰에도 단면 Ω자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철제 찰갑만이 아닌 갑주문화전반에 걸쳐진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현주 2014).

【표 2】 5~6세기 지역별 찰갑 출토현황

구분	부산 김해	함안	고령	합천 및 기타
5세기 전엽	복천동 36호분 복천동 34호분 대성동 11호분 능동 25호분 칠산동 35호분			옥전 67B호분
5세기 중엽	여래리 Ⅱ 40호분 학소대 1구3호분 복천동 11호분	도항리 43호분 도항리 48호분	지산동 75호분 지산동 32호분	
5세기 후엽	오륜대고분 연산동 M3호분 연산동 M10호분 연산동 8호분	암각화고분 도항리 8호분	지산동 74호분	옥전 5호분 옥전 28호분 옥전 35호분 옥전 M1호분
6세기 전엽			본관동 36호분 지산동 1호분(영대) 지산동 44호분 지산동 45호분	옥전 M3호분 옥전 M7호분 월산리 M-5호분 송학동 1A-1호분

2) 왜계 찰갑과의 관계

일본에서는 수결 2열식 기법과 Ω자형 요찰, Ω자형 도련찰에 대해 한반도의 찰갑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자체 개방하여 탄생한 일본고분시대 후기의 정형화된 찰갑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수결 2열식 배열은 이미 오래전에 한반도에서 개발되었던 기술이었음이 확실하고 주류에서 벗어나지만 다양한 기술요소 중의 하나라고 불수 있다. 전반적인 주류는 수결 1렬식에 S자형 요찰, 그리고 평찰로 마무리하는 도련찰로, 이러한 기본형식은 6세기 중엽까지 지속된다. 그런데 일본의 고분시대 후기에 대금식 갑주에서 찰갑으로 진화한 후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결 2열식과 Ω자형 요찰의 찰갑양식을 선호하였고, 고분의 부장품으로 갑주의 상징성이 지속되었던만큼 출토량도 한반도보다 많아서 마치 일본의 고유형식으로 보여지고 있다(이현주 2016).



〈그림 16〉 S · Ω자형 요찰과 수결1열 · 2열의 소찰갑(内山敏行 2008)

한반도에서는 일본열도와 달리 6세기 이후부터 고분의 부장유물은 극히 박장의 양상을 보인다. 이점은 찰갑의 부장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6세기 이후에는 관방시설에서 발굴되는 양이 오히려 더 많은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이때부터 찰갑을 비롯한 갑주류는 더 이상 신분의 우위를 표현하는 상징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열도의 찰갑과 비교검토가 다소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이현주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일본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찰갑의 몇몇 요소들은 이미 가야의 찰갑에서도 시전된 것들이며, 이후 가야지역의 찰갑 출토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이것들이 왜계 찰갑으로 간주되는 것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현주 2016). 향후 제작기술의 세부적인 연구 등을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대금식갑주와 교류

일본열도에서 대금식갑주의 등장은 고분시대 중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리고 왜계무장의 구성요소가 갖추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금식갑주를 포함하여 왜계 무장이 한반도 남부의 각지에서 출토하는 현상을 보는 시각은 한일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하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중심

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한반도에서 대금식갑주가 분포하는 지역을 크게 나누면 백제와 가야지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신라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삼정 115호분에서 1점의 대금식판갑이 출토하였으나 신라중앙이 아닌 점에서 가야의 부장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는다.

1) 가야지역의 대금식갑주 부장 의미

가야지역에서 확인된 대금식판갑은 모두 14점에 달하지만 출토유구와 공반유물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래의 표1에서와 같이 11점이다. 대금식판갑 없이 투구(冑)를 비롯한 부속구들만이 출토된 경우도 있다.

먼저 중소형분에 해당하는 분묘에서 출토된 사례를 보면 복천동 4호분, 112호분, 가달 4호분, 두곡 43호분, 72호분, 옥전 68호분 출토품이 있다. 이들 유구는 기존의 연대관에서 본다면 대개 5세기 중후엽으로 편년할 수 있는데 찰갑이나 다른 재지계 갑주와 무관하게 대금식판갑를 부장한 유구들이다. 이들 유구는 집단내의 중간지배층의 분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이 소유한 대금식판갑은 당시 실사용품의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형분에서 대금식판갑이 발견된 사례를 보면 연산동 8호분, 옥전 28호분, 교동 3호분, 지산동 32호분 출토품 등이 있다. 이들 대형분에는 찰갑과 만곡종장판주 등을 기본 갑주로 부장하고, 대금식판갑을 추가로 부장하였다. 이것은 전자의 중소형분의 갑주부장양상과 달리 대금식판갑이 피장자가 소유한 재화로서 분묘에 부장된 것이다. 즉 중소형분의 갑주보유형태는 피장자의 실사용품의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실사용품이 아닌 소유물품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한반도 특히 영남지방에서는 지배층의 찰갑선호에 의해 종장판갑의 제작이 중단되면서, 중간지배층에서는 왜제의 대금식갑주를 보유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반면에 상위지배층에서는 찰갑을 기본 방어구로

〈그림 17〉 지산동 32호분 출토 대금식갑주

〈그림 18〉 도항리 13호분 출토 대금식판갑

〈그림 19〉 길두리 안동고분 출토 대금식갑주

사용하면서 대금식갑주를 재화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다른 부장품들과 함께 부곽에 부장하였다. 이것은 찰갑과 판갑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주종의 개념으로 취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백제지역의 대금식갑주 부장 의미

백제지역에서는 재지계 갑주의 부장양상을 거의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백제의 갑주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백제지역에서 확인되는 5세기대 갑주는 일부 찰갑을 제외하면 모두 왜계인 것이 특징이다.

서남해안의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왜계 갑주는 백제와 왜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안동고분에서는 부속구가 완비된 상태의 장방판혁철판갑과 차양주 2개체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야막고분에서는 부속구가 완비된 삼각판혁철판갑과 충각부주가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배널리 3호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 아마 앞으로 대금식판갑의 출토량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도서지역에서 확인된 대금식판갑을 부장한 유구는 매장주체부가 소형 석곽 내지 석실이지만, 분구를 성토하여 외관상으로 장대한 효과를 노렸다. 매장주체부 주변의 즙석시설과 유구형태로 볼 때 왜계 분묘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표 3】 대금식판갑 속성현황(박준현 : 2013 일부수정, 회색은 가야지역)

유구	형태	연결방법		복륜		개폐장치				
		혁철	병유	혁뉴	철포	동일련	긴고리	장방2	방형4	고리
안동고분	장방	●		●		●				
연산동 8호분a	장방	●		●		●				
두곡 72호분	장방	●		●		●				
하삼정 115호분	장방	●		●		●				
복천동 4호분	삼각	●		●		●				
도항리 13호분	삼각	●		●		●				
옥전 68호분	삼각	●		●		●				
야막고분	삼각	●		●		●				
두곡 43호분	삼각	●		●		●				
배널리 3호분	삼각	●		●		●				
옥야리 1호분	삼각	●		●		●				
신봉동 B-1호분	삼각		●			●				
전연산동	삼각		●		●		●			
가달 4호분	횡장		●		●		●			
연산동 8호분b	삼각		●		●		●			
교동 3호분	삼각		●		●			●		
옥전 28호분	횡장		●		●			●		
차동 Ⅱ-10호분	횡장		●		●			●		
상백리	삼각		●		●				●	
복천동 112호분	횡장		●		●				●	
망이산성	횡장		●							●
지산동 32호분	횡장		●				●			

그런데 이들 대금식판갑들은 일본의 편년안에 따르면 대부분 고식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장방판혁철판갑과 동일련식의 삼각판혁철판갑 등 대금식판갑의 등장기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일본 편년안에 따른다면 4말5초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안동고분에서는 병류기법으로 제작된 차양주가 같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대개 5세기 2/4분기로 보는 입장이 많다. 주목되는 점은 안동고분에서 백제의 금동관모와 식리(飾履)가 공반된 것이다. 이것은 서남해안에 왜계 무장이 분포한 정황이 백제중앙의 적극적 동의하에 진행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왜계 대금식갑주를 보유한 군사력은 백제와 왜의 상호필요성에 의해 유입된 것이 분명하다. 백제의 한성기 전후 서남해안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 미약한 상황하에서 백제가 왜의 군사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가 서남해안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직전까지의 현상으로 보고 싶다.

3) 부장양상의 의미

가야와 백제지역의 대금식갑주는 부장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듯이 부장의미에서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가야지역에서의 대금식판갑은 재지계 유구와 유물들 속에 이질적으로 부장된 것이다. 중소형분의 출토품은 실재 사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형분의 출토품은 실사용보다는 왜로부터 유입된 희소품으로 재화적 가치로 부곽에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백제지역의 대금식판갑 부장양상은 왜계 석곽(실)에 공반유물들조차 왜계 유물 일색인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대금식판갑을 비롯한 왜계 요소가 주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장자가 왜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 대금식갑주 출토유구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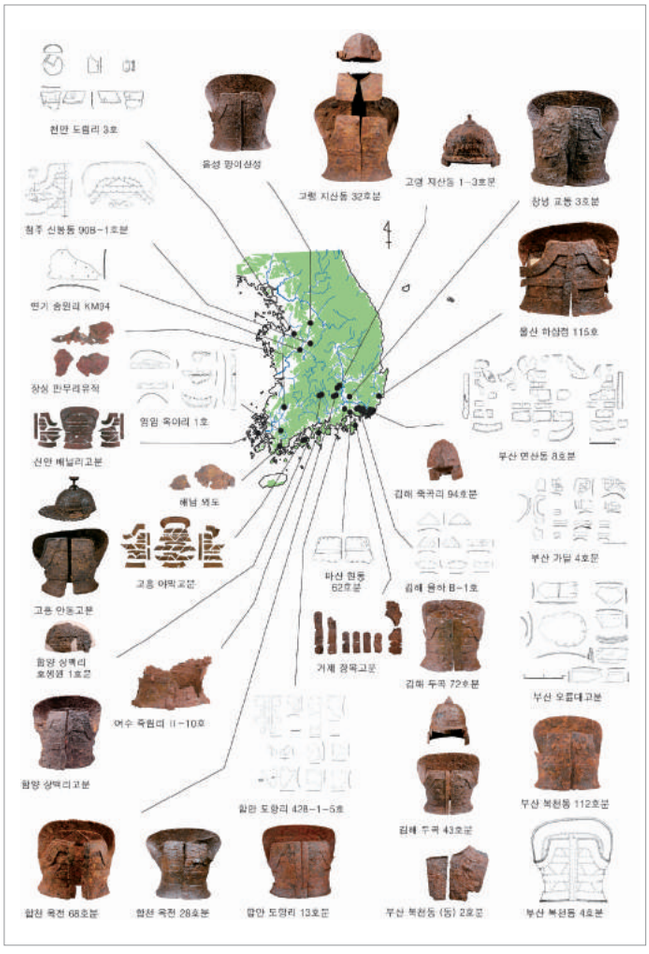
유 구	묘형	규 격(㎝)	재지계갑주	판갑유무	비 고
율하B-1호분	석곽	220-46			
옥전 68호분	목곽	235-60		●	
장목고분	석실	315-180		●	왜계
가달 4호분	석곽	325-85		●	
죽곡리 94호분	석곽	348-94			
복천동 4호분	석곽	420-90		●	
옥전 28호분	석곽	445-140	찰갑, 만곡종장판주	●	
복천동 112호분	석곽	510-120		●	
도항리 13호분	목곽	520-150		●	
지산동 32호분	석곽	564-180	찰갑, 만곡종장판주	●	
복천동 2호분	석곽	580-120			
교동 3호분	석실	720-130	찰갑, 만곡종장판주	●	
연산동 8호분	석곽	主540-190 副370-160	찰갑, 만곡종장판주	●	
배널리고분	석곽	200-45		●	왜계
옥야리 1호분	석실	300-130		●	왜계
야막고분	석실	310-86		●	왜계
안동고분	석실	320-160		●	왜계
죽림리 II 10호분	석곽	(162)-70		●	왜계
신봉동B-1호분	목곽	360-180		●	왜계

가야와 백제지역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의 차이를 보면, 먼저 가야지역에는 몇 개의 정치집단(고령의 대가야, 고성의 소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창녕의 비화가야, 부산 · 김해의 금관가야)이 독립적인 대외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일정규모의 정치집단이 병렬적인 구조로서 세력을 유지하였고, 이들 집단은 열도와도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때 열도의 교섭주체가 기내정권인지 아니면 열도내 지역세력인지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 다만 가야지역에서 보이는 대금식갑주의 소유형태를 본다면 이들 유물이 기내의 왜왕권과의 교섭의 결과물로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왜왕권과의 교섭으로 유입된 정치체간의 교류물자를 중소지배층의 분묘에까지 부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야지역의 대금식갑주는 왜왕권과의 교섭과정에서 유입된 것도 있겠지만, 이외에 열도의 지역세력과 가야제국간의 교섭과정에서 유입된 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본다.

백제지역의 대금식갑주는 백제와 왜의 상호 필요에 의해 유입된 것이다. 가야의 부장양상과 달리 백제지역의 경우 왜계분묘와 왜계무장 등이 세트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단순한 물자만의 유입이 아니다. 왜의 무장을 갖춘 군사력이 서남해안지역에 유입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제중앙과 왜의 상호 필요성은 백제의 경우 점증하는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왜의 군사력이었다. 왜는 가야의 쇠퇴에 따른 선진문물 수입루트의 다변화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다만 이러한 양자간의 필요성의 측면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백제중앙과 대응하는 왜의 주체가 기내의 왜왕권인지, 지역정치체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백제지역에 유입된 대금식갑주를 포함한 왜계무장은 상당히 조직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야지역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가야와 달리 백제는 왜왕권과의 교섭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본다.

5세기 이후 왜의 무장체계는 가야지역에는 주로 군수품의 형태로 유입되었지만, 백제에는 인적자원까지를 포함한 군사력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서남해안지역에 분포하는 왜계 분묘와 대금식갑주는 백제에 제공한 왜의 군사력의 흔적이다. 양자의 차이는 왜의 교섭주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왜의 기내정권과 백제, 왜의 지역세력과 가야제국의 교류관계가 병존했고, 이러한 현상이 분묘에 표현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그림 20〉 대금식갑주류 분포도(갑주 2015)

3 -6 _Layout 1 2018. 5. 23. 2:50 Page 220

Ⅳ. 갑주 부장의 의미와 변화

1. 갑주의 용도

갑주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어용구이다. 당연히 공격용 무기를 막기 위한 용도로서 실전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갑주의 희소성이나, 장식성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실사용품만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종장판갑과 관련해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고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언급해 보기로 한다.

1) 실전용

갑주는 전투시에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구이다. 보다 강한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 점차 강도가 높은 재질로 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철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삼국시대부터는 당대 최고의 재질인 철을 이용하여 갑옷을 만들었다. 철제 갑옷은 상당한 수준의 방어력을 확보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무거운 무게와 활동성의 제약으로 인한 단점도 감수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제판갑은 4세기 무렵 영남지방의 수장급 무덤에 부장되었다.

철제판갑은 초현기에 착용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는 경외로운 방어구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력도 확보한 상태인지라 전장에서 유효한 방어구로서 선호 받았을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무덤에 부장된 종장판갑의 일부는 수리 · 보수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화살에 의한 관통흔을 수리한 흔적이나, 일매의 지판으로 구성해야 할 부분을 2매의 지판으로 제작한 경우 등이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명백하게 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사용의 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종장판갑의 수리흔적은 종장판갑을 실제 사용한 실전무구로 보아야 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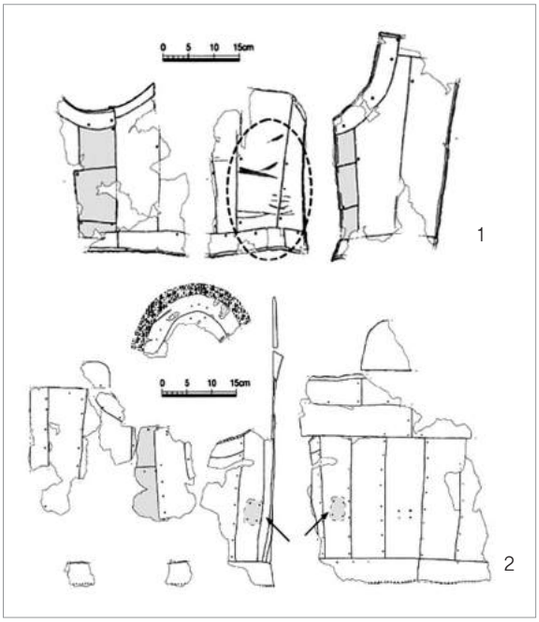
종장판갑은 아니지만 6세기 한강주변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원에서 확인된 고구려 보루유적에서 발굴된 찰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 찰갑들이 관방유적에 남겨진 것들은 실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벽화고분에서 보이는 찰갑이 실전을 전제로 한 보루 등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찰갑이 단순한 부장용 물품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이를 기초로 소급해 본다면 종장판갑의 실제 사용상의 장단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종장판갑보다 더 나은 갑옷이 개발되면서 점차 실전에서 밀려났을 것이다. 대개 찰갑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종장판갑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전사들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갑옷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그림 21〉 복천동 38호분 출토 종장판갑 수리흔적

2) 부장용

앞에서 종장판갑이 실전에 사용된 방어구로서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장판갑은 4세기대 영남지방의 무덤에서 많은 수가 부장되고 있다. 그중에서는 고사리문양과 새모양, 동물 깃털 등으로 장식된 것들이 많다. 이것들은 착용자로 하며금 상대와 자신을 차별화하는 위신재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장에서도 착용자의 신분을 강조하는 도구로서 종장판갑의 장식성은 유효할 것이다.

한편 종장판갑이 부장된 무렵에 종장판갑의 제작원리라든지, 복수부장 등의 원리에서 정형화되었음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종장판갑의 제작과정에서 보이는 덧댄 형태의 지판연접방식은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점에서 설계원리에 입각한 제작이 아닌 급조하면서 나타난 비정형성이라는 점에서 종장판갑이 부장을 위한 용품으로 보기도 하였다(송계현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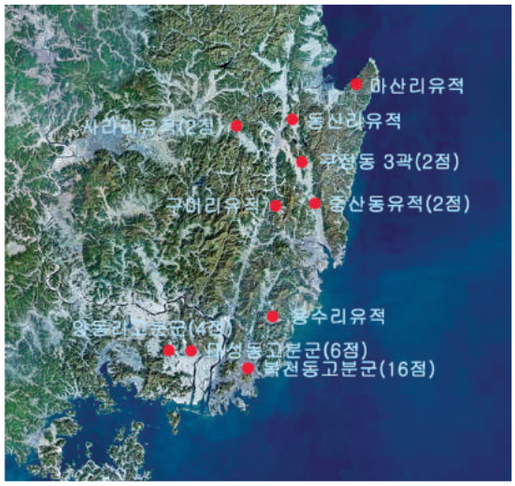


〈그림 22〉 판갑의 보수흔적(1. 복천동 69호분, 2. 대성동 57호분)

종장판갑을 부장용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매로 구성하는 지판을 2매로 덧대어 맞춘 경우와 몇몇 지판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고 다소 어긋나는 것들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장자의 급사로 의해 부장품으로서 종장판갑을 급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따라 허술한 결합방식이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종장판갑의 장식적인 요소는 쉬이 수긍하기 어렵다. 물론 무덤에 부장된 채 확인되었기 때문에 부장용이라는 점은 틀리지 않다. 종장판갑은 부장용으로 제작되기 이전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후에 착용자의 사망에 따라 그의 무덤에 부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실전을 위해 제작되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무덤에 부장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3) 상징용

종장판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장식성이 강조되는 양상으로 진화한다. 고사리문과 동물깃털을 이용하여 판갑의 외형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착용자의 신분을 표현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장식적인 요소는 초현기의 판갑이 아닌 대개 4세기 후엽 이후의 것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때 보이는 장식들은 정형화된 장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형화된 장식이 아닌 판갑의 부분적인 수리 보수흔적과 덧댄 형태의 연접방식들에 대하여 흥미로운 해석이 있었다(송정식 2015). 기존에는 판갑의 수리는 실사용에 의한 파손의 증거로서 판갑이 실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덧댄 흔적은 기본 설계에 의해 제작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전이 아닌 부장을 위해 급조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이들 2가지 증거는



〈그림 23〉 종장판갑 분포도

비규격성이라는 용어로 설명되었는데 고사리문이나 새 장식, 그리고 동물의 깃털로 장식된 정형화된 장식과 구별되는 비정형화된 장식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 판갑에 남겨진 이들 정형화된 장식과 비정형화된 장식의 흔적들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먼저 정형화된 장식을 태양숭배와 기복신앙의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다. 고사리문양과 동물깃털은 태양숭배, 새 장식은 기복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나선형의 고사리문과 방사상을 뻗친 형상의 동물 깃털을 태양숭배로 보는 시각은 선사시대의 암각화를 비롯하여 토기의 문양 등에서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새와 관련된 기복의식은 선사이래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인간저변의 관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비정형화된 장식은 남성성과 모방주술이라는 해석틀을 적용하였다. 파손과 수리흔적, 그리고 덧댄 연접흔적 등을 사용에 의한 수리흔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의도적으로 판갑을 파손하여 수리함으로서 착용자가 많은 전투경험으로 단련되었다는 강인함을 표현하려는 의도, 즉 강한 남성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민속지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를 종장판갑에 적용한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방식이다.

2. 갑주부장의 변화

1) 종장판갑의 부장

4세기 이후에 등장한 철제 갑주는 등장과 동시에 당시 최고 지배층의 무덤에 부장되었다. 등장 이후부터 6세기 전엽까지의 대략 2백 년 동안 철제 갑주는 지배층의 중요한 소유물로서, 실제로 사용하였고, 사후에 무덤에 부장하는 기능까지도 함께 하였다. 갑주가 처음 부장될 당시의 판갑과 찰갑은 희소성에 의해 최고지배층의 무덤에 부장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신식의 더 나은 갑주가 등장하면서 점차 부장양상도 변화하였다.

먼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유행한 종장판갑의 부장양상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보겠다. 가장 이른 형식의 종장판갑은 복천동 38호분 출토품이다. 기본적으로 가죽끈을 사용하여 지판을 결합하는 방식이라든지, 소매판이 부착된 점, 경갑형의 목가리개를 한 점들은 종장판갑 제작방식에서 고식의 요소들이다. 이와 유사한 시기의 것이 지역을 달리하지만 경주의 구정동 3곽 출토품이다. 제작시기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복천동 38호분의 경우 찰갑 1령이 같이 출토하였는데 구정동 3곽에서는 종장판갑이 2령 부장되어 있어서

양 무덤에서 2벌의 갑옷이 부장된 점에서 공통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필자는 복천동고분군 집단이 신라세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양지역의 종장판갑 제작 방식도 기본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것이었다고 본다. 소매판을 가진 점, 경갑형 목가리개 등의 유사점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동일한 기술계통을 가진 종장판갑이지만 신라지역에서는 종장판갑의 부장 습관이 크게 유행하지 못했던 것 같다. 반면에 금관가야지역에서는 복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대성동고분군과 양동리고분군 등에서 꾸준하게 종장판갑이 부장되었다. 하지만 (표 5)에서 보이듯이 부장의 중심시기를 달리하면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부장되기 시작한 복천동고분군에서 대유행하였다. 처음에는 찰갑과 동시에 부장(복천동 38호분)되지만 이후 일정기간동안은 종장판갑이 복수부장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한편 대성동고분군에서도 종장판갑의 부장이 4세기 후엽부터 이루어진다. 대성동 39호분에서는 종장판갑을 피장자의 좌측에 배치하고 피장자는 찰갑을 착용한 상태로 안치되었다. 즉 피장자의 공간에 철제 경갑과 요찰이 놓여져 있었다. 몸통부분은 피갑을 착용했었다고 본다. 즉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종장판갑이 부장되지만 요찰이 있는 나름 정형화된 찰갑을 동시에 부장하였다. 더욱이 주목되는 점은 대성동 39호분은 대성동고분군 내에서 비교한다면 유구의 규모면에서는 중간지배층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57호분, 93호분의 경우는 왠지 부장 위치가 순장자와 인접해 있다는 점 등은 종장판갑이 피장자와 위계를 표현하는 위신재적 성격보다는 소유한 재화로 취급된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장판갑이 대성동고분군 집단 지배층의 주력 방어구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동리고분군에서도 몇례의 종장판갑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전체 조사된 유구수에 비한다면 출토빈도는 대단히 낮은 편이다. 최근에 조사된 Ⅳ-1호분출토 종장판갑이 양동리고분군내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대개 4세기 후엽경으로 보인다. 양동리고분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혈주부곽식구조의 집단내 최상위 지배층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출토된 판갑은 소위말하는 비규격성의 것으로 이후의 78호분, 167호분, 321호분 출토의 종장판갑에 비하면 장식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양동리고분군의 종장판갑 부장 시기는 대개 5세기 이후가 중심이다. 출토 유구의 규모도 대개 중소형의 목곽묘 등으로 종장판갑의 소유계층이 중간지배층으로 하락하였음을 보여준다. 종장판갑은 5세기 무렵에 가장 화려한 장식성을 갖춘 후 곧바로 쇠퇴하였는데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전퇴래리출토품이라고 생각한다.

종장판갑이 쇠퇴한 것은 찰갑의 사용이 보편화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4세기 무렵에도 많은 양은 아니

【표 5】 4~5세기 고분별 종장판갑 출토현황

구분	복천동	대성동	양동리	기타
4세기 전엽	38호분			구정동 3곽
4세기 중엽	57호분, 86호분			중산동유적
4세기 후엽	42호분, 46호분, 69호분, 71호분, 164호분	2호분, 39호분, 57호분	Ⅳ-1호분	
5세기 전엽		7호분, 93호분	78호분, 167호분, 321호분	구미리유적
5세기 중엽	10호분			

지만 찰갑이 제작되었다. 복천동 38호분에 보이는 찰갑은 기존의 철제의 찰갑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당시의 제작품이다. 가죽끈이 끼워지는 소찰의 구멍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등 조잡한 제작방식이 고스란히 찰갑에 남아있다. 찰갑 제작의 초창기에는 작업공정상 종장판갑보다 섬세하고, 번거러운 점이 큰 장애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지속적인 제작이 이루어지고 작업의 숙련도가 진전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찰갑의 보편화에 가장 큰 역할은 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종장판갑으로 무장한 금관가야 병사의 경주 난입을 구원하기 위해 출정한 고구려군의 중장기병이었다. 찰갑으로 무장한 고구려군의 중장기병은 영남지방의 종장판갑체제를 일거에 변화시켜 버렸다.

2) 찰갑의 부장

5세기의 시작과 함께 단행된 고구려군 남정의 결과, 영남지방에서 종장판갑은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자리를 찰갑이 채우면서 무덤에서 나타나는 부장양상도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종장판갑은 양동리 고분군의 중형급 목곽묘 등에서 보이며, 복천동, 대성동고분군 등의 무덤에서는 점차 지배층의 위신재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

5세기 이후 고구려군의 위세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영남각지의 정치세력은 기존의 군사 편제(編制)를 새롭게 재편하였다.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은 기존의 보병 위주의 군사 편제를 찰갑과 기승마구의 적극적인 채용을 통하여 중장기병이 중심이 되는 군사 편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군사조직의 변화는 영남지방의 갑주문화에도 커다란 획기를 이루는 충격을 가져왔다. 종장판갑의 가치 하락과 찰갑의 보편화, 그리고 마갑, 마주, 기승마구의 발전 등 사회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를 수반하였다.

중장기병의 도입에 따라서 찰갑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몇례를 보면, 먼저 종장판갑의 제작 중단으로 인하여 중간지배층의 일부가 왜제의 대금식갑주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백제지역과 가야지역에 유입된 대금식갑주는 소유의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가야지역의 대금식갑주는 첫째 종장판갑의 제작 중단에 의한 중간지배층의 수요에 의한 유입, 둘째 가야 정치세력에 대한 왜 정치체의 호의적인 제공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야지역에서 대금식갑주는 중형급 무덤에 부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형 무덤에서 출토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찰갑을 주력 방어구로 하고, 대금식갑주를 재화의 가치로 부장하였다. 찰갑이 지배층의 방어구로 채용된 이후부터 판갑은 – 대금식판갑을 포함하여 – 더 이상 지배층이 선호하는 방어구가 아니었다.

대금식갑주와 함께 마갑, 마주가 등장하여 부장되기 시작하였다. 마갑과 마주의 출토례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중장기병의 현존으로 영남지방에 등장한 중장기병의 존재를 실증하는 자료들이다. 5세기 중후엽의 무덤을 중심으로 마주, 마갑, 기승마구 등 중장기병의 실존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영남각지에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야의 제국들이 앞다투어 자존을 위한 군비확장을 추진하였던 증거이다. 고령, 옥전, 함안, 고성, 김해, 부산 등지에서 확인된 고총의 찰갑 부장은 제 가야정치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시기의 신라 무덤에서는 이때부터 군사적 성향이 강한 갑주류보다는 금공품 위주로 위신재가 변화하

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을 정복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매장의례에 철제 무기류 등의 실용무기를 폐기하는 행위를 규제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즉 신라의 경우 고대국가체로 진화한 후 정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중앙의 통제에 의해서 무덤의 갑주부장이 급감하였다. 하지만 신라의 정치적 영향권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김해, 창녕 등지에서는 지역자치권을 보유한 채로 통치권의 수단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군사력을 무덤에 반영하였다.

〈그림 24〉 여래리 Ⅱ-40호분 출토 찰갑

5세기 후엽부터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따라 영남지역에도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고, 군사적 긴장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비 확충이 이루어졌다. 앞서 말했지만 정복전쟁의 시작으로 인하여 실사용의 무기류의 무덤매납은 일정수준으로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제지역에서의 갑주부장은 계속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무덤에서 보이는 군사적 성향은 당시의 군사적 긴장감의 극히 일부만이 반영된 것이다. 찰갑을 비롯한 출토유물의 양에 비하여 당시 무기와 무구류의 제작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반까지의 시기동안 서부경남, 즉 고령, 합천, 함안, 고성 등의 제가야 정치세력들의 갑주제작 수준은 국내를 넘어 일본열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3. 갑주문화의 특징

1) 독창성

영남지방에서 갑주가 언제부터 처음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철제의 갑주가 실물로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대개 4세기 전엽부터라고 본다. 철제 이전의 갑옷은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를 재료로 해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충족하였다. 그 증거는 다호리유적에서 확인된 칠소찰과 노포동 31호분의 유기질흔적 등이 있다. 사실 삼한 소국단계에는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여 중원의 선진문물들이 영남지방에도 유입되었다. 다호리에서 발견된 칠소찰도 중원에서 유입된 찰갑의 흔적인 셈이다. 이렇듯 당시의 갑옷은 대부분 가죽으로 만든 소찰에 칠을 입혀 강도를 높인 상태의 가죽제 갑옷, 즉 피갑(皮甲)이었다. 피갑이란 재질상의 한계로 인해 거의 실물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이후에 철제 판갑을 제작할 때 기본 설계과정에 그 형태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25〉 쌍영총 고분벽화의 개마무사

4세기 전엽경 종장판갑과 찰갑이 거의 동시에 철제의 갑옷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종장판갑은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갑옷이지만 찰갑은 이전의 피갑의 형태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원과 고구려지역 등지에서 보이는 소찰을 이용한 찰갑의 제작방식은 이미 동북아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갑옷의 기본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찰갑은 기존의 영남지방에서 사용되었던 피갑에서 철제로 전환된 형식의 갑옷이다. 반면 종장판갑은 기존과 달리 새롭게 고안된 갑옷이다. 종장판갑의 실물자료는 영남지방의 벗어나서 확인된 예가 없다. 덕흥리벽화고분에 갑옷가운데 소찰이 표현되지 않은 것을 판갑으로 보기도 하였지만 실물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영남지방에서 종장판갑이라는 독특한 형식의 갑옷이 제작되어 한시대를 풍미하면서 유행하였다.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종장판갑은 복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금관가야의 갑옷으로 화려한 장식이 가미된 위신재로서 지배계층의 주력 방어구로서 사용되었다. 정형화된 찰갑이 지배층의 방어구로 채택되기 이전까지 약 백여년간 만들어졌다.

종장판갑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형태로 당시 금관가야의 탁월한 철기제작기술이 뒷받침된 결과물이다. 기존의 소찰을 가죽끈으로 연결하기 보다 철제 지판을 재단하여 리벳팅하여 철판을 이어 붙인 방법으로 제작한 판갑은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흉내조차내지 못한 독창적인 창작물이었던 것이다. 왜의 수신판혁철단갑(竪矧板革綴短甲)이 한 벌 알려져 있지만 가야의 종장판갑과 비교할 바 아니다. 찰갑은 소찰편을 일일이 제작하여, 소찰의 구멍을 뚫어, 가죽끈을 연결하는 등 노동집약적인 제작공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작공정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세로로 된 긴 지판을 연접하여 제작공정을 최소화한 것이 종장판갑이었다. 여기에 기존에 알려진 경갑을 덧붙였는데 이후에 후경판과 측경판으로 이를 대체하여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완성도를 높였고, 기타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화려함마저도 완비한 독창적인 갑옷이 만들어진 것이다.

종장판갑은 금관가야의 탁월한 철기제작기술과 뛰어난 미적 감각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동북아시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당대의 가장 독창적인 산물이었다.

2) 선진성

가야 갑주문화의 선진성을 논하려면 먼저 종장판갑에서 새롭게 적용된 기술 가운데 리벳팅기법을 들 수 있다. 철판을 연접하기 위하여 가죽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못을 사용하여 지판을 연결한 것인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독창적인 시도이기도 하지만, 영남지역의 철기제작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선진성을 담보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당시에 철기제작기술에서는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금관가야의

저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종장판갑과 별개로 찰갑의 변화과정에서도 가야지역의 찰갑은 일본열도제와 항시 비교되는 입장이었다. 1990년대의 찰갑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야지역의 찰갑이 열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6세기 이후 일본열도제의 찰갑이 영남지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清水和明 1996) 하지만 가야지역의 찰갑연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가야 찰갑의 선진성이 부각되면서 일본열도제라고 하는 찰갑들도 가야 찰갑의 영향을 받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가야에 철제 찰갑이 등장한 것은 4세기 무렵이지만 사실 대성동고분군에서 확인된 삼연관련 유물들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과연 금관가야지역에서 보이는 찰갑을 단순하게 자생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고구려의 영향하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원적 요소를 수입하여 내적으로 자기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특정 요인이라기보다 복합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가능성 아래에서 이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일본열도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점은 분명하다. 외래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이를 자기 것으로 승화하여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만한 문화적 선진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즉 가야 갑주는 그만큼 다른 지역을 압도할 수준의 선진성이 갖추어져 있었기에 다른 지역으로서의 전파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점은 가야 갑주의 국제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

3) 국제성

가야 갑주의 국제성을 논하기 이전에 대성동고분군에 보이는 중원적인 요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금구, 말장식품 등 이들 유물은 최소한 4세기 중엽에 단순한 인적 교류 이상의 활발한 교류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삼연, 고구려, 그리고 중원의 여러 세력들이 금관가야의 대외교류 대상이 되었다(조성원 2016). 중원과의 다각적인 교류와 일본열도와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관가야는 국제적인 정치체로 성장하였다. 대성동고분군에서 나타난 외래계 유물은 금관가야의 국제성을 잘 보여준다.

금관가야의 대외교류가 국제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당시 첨단 군사기술의 범주에 속했을 갑주에서도 일정수준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삼연과 관련하여 최근 조사결과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라마동(喇嘛洞)유적의 자료는 금관가야와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찰갑과 투구류에서는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기술적인 교류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야와 왜의 갑주류의 비교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았다. 향후 가야 갑주의 국제성을 찾는 측면에서 라마동유적을 비롯한 중원자료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후기가야단계가 되면 찰갑의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영남지방 각지에서 찰갑이 부장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왜계의 대금식갑주가 부장된다. 찰갑이 보편화되면서 종장판갑의 제작이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대체수요를 대금식갑주가 메운 것이다. 대형 무덤이라고 보기 힘든 김해의 두곡, 죽곡, 가달 등지에서 보이는 대금식갑주는 종장판갑의 대체수요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왜계의 무장들이지만 필요에 의해 사용한다는 점은 당시 가야의 국제성을 잘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대형 무덤에서 보이는 대금식갑주의 경우에는 호의적인

제공품으로서 유입되었기에 대체수요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유입된 왜계 대금식갑주와 반대로 가야의 찰갑도 일본열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왜의 고분시대 후기에 대금식판갑이 제작되지 않으면서 찰갑은 열도의 군마(群馬)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세부적인 속성에서 양 지역간에는 유사점들이 많이 보이므로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이 분명하다. 열도제로 파악된 많은 찰갑들이 세부적인 속성의 검토를 통하여 가야지역의 기술적인 선진성에 영향받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가야 갑주의 국제성이 일본열도의 찰갑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속성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가야 갑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해 보았다. 큰틀에서 가야 갑주의 흐름을 되짚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가야의 철제 갑옷은 4세기 전엽으로 편년되는 복천동 38호분에서 출토된 종장판갑과 찰갑이 가장 이른 것이다. 이후 복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대성동고분군, 양동리고분군 등에서 종장판갑이 꾸준하게 부장되었다. 한편 찰갑은 종장판갑에 비하여 그다지 많이 제작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찰갑은 피갑의 형태로 사용된 경우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출토량만으로 어느 쪽이 더 선호된 갑옷의 형태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종장판갑은 영남지방에서 독창적으로 제작된 지역성이 강한 갑옷이다. 금관가야는 매장의례에 갑주를 부장하는 행위가 신라보다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신라에 비하여 갑주의 부장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금관가야의 독창적인 종장판갑은 독창성과 선진성, 그리고 뛰어난 미적 감각을 표현한 장식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당대에는 최고의 위신재로 각광 받았다. 하지만 찰갑의 효용성에 의해 점차 위신재로서의 가치가 하락하여 생산이 중단되었다.

찰갑이 고구려군의 남정이후 가야의 주력 방어구로 자리 잡으면서 종장판갑은 중간 지배층의 소전유물로서 가치가 하락하였다. 그마저도 생산이 중단되면서 왜에서 유입된 대금식갑주류가 이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5세기 이후 가야 각지의 수장층은 중장기병을 도입하면서 찰갑으로 무장하였고, 중간 지배층은 종장판갑 내지 대금식판갑을 입수하여 무장하였다.

한편 찰갑과 관련하여 6세기대의 찰갑 가운데 왜계 찰갑의 요소라고 지적된 것을 근거로 왜계 찰갑이 가야 찰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왜계 찰갑의 영향과 관련된 반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이 최근 우리나라 갑주연구사의 큰 성과이자 흐름이라는 점이다. 양호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굴되면서 향후 한일간의 갑주연구에는 새로운 성과들이 도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야 갑주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세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독창성이다. 종장판갑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갑옷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가야에는 있었다. 현실에서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기존의 틀에 구애받지 않는 독창적인 의식이 가야의 종장판갑에는 녹아 있다. 둘째 선진성이다. 기술

3 -6 _Layout 1 2018. 5. 23. 2:50 Page 229

적인 선진성이 종장판갑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노동집약적인 작업활동을 일거에 해결하는 철기제작기술은 가야의 선진기술의 수준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셋째 국제성이다. 가야는 삼연을 비롯하여 고구려 백제 왜 등과 국제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가야 갑주에도 외래적 요소가 반영되었고, 또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앞으로 가야 갑주와 주변지역과의 연관성을 살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김 영 민

참고문헌

김두철, 2003, 「고구려군의 남정과 가야」, 『가야와 광개토대왕』, 제9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김해시.

김영민, 1995, 「영남지역 판갑에 대한 일고찰」, 『고문화』 4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김영민, 2000, 「영남지방 판갑에 대한 재고」, 『울산사학』 9, 울산대학교 사학회.

김영민, 2008, 『금관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영민, 2011,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의 갑옷과 투구」,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의 역사적 성격』, 전남대학교박물관.

김재우, 2010, 「금관가야의 갑주」, 『 대성동고분군과 동아세아』.

김혁중, 2009, 「연산동 8호분 출토 찰갑의 구조와 특징」, 『한국의 고대갑주』, 복천박물관.

김혁중, 2011,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의 분포와 의미」, 『中央考古研究』 第8號 중앙문화재연구원.

박준현, 2013, 「한반도 출토 대금식판갑의 편년 연구」, 『영남고고학』 66, 영남고고학회.

송계현, 2002, 「한국 고대의 갑주」, 『 한국고대의 갑옷과 투구』, 국립김해박물관.

송정식, 2009, 「삼국시대 판갑(板甲)의 특징과 성격」, 『학예지』 제16집 육군박물관.

송정식, 2010, 「동북아시아 찰갑의 기술계통 연구」, 『야외고고학』 9,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송정식, 2010, 「가야 종장판갑의 장식적 요소와 상징적 의미」,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신경철, 2000, 「백제의 갑주에 대하여」, 『백제사상의 전쟁』.

우순희 2001, 「Ⅳ. 고찰」 『동래복천동 학소대고분』, 부산대학교연구총서 제26집.

이현주, 2009, 「한국 고대갑주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고대갑주』 복천박물관.

이현주, 2016, 「연천무등리출토 찰갑으로 본 찰갑의 변화」, 『최몽룡선생고희기념논총』.

李賢珠, 2014, 「三國時代札甲製作技術의 受容과 展開」, 『古代武器研究』 第10號, 古代武器研究會.

장경숙, 2007, 「함안 도항리 고분군 출토 방어무장의 성격 –비늘갑옷과 종장판투구를 중심으로–」, 『동서문물』 창간호, (재)동서문화재연구원.

황수진, 2011, 「삼국시대 영남 출토 찰갑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제78집, 한국고고학회.

清水和明, 1996, 「東アジアの小札甲の展開」, 『古代文化』 48, 古代學協會.

田中晋作, 2005, 「391年後の前方後圓墳と副葬品」, 『季刊考古學』 76, 雄山閣.

橋本達也, 2006, 「甲冑編年研究の日韓比較–帶金式甲冑を中心として–」, 『日韓古墳時代の年代觀』國立歷史民俗博物館.

内山敏行, 2008, 「小札甲の變遷と交流–古墳時代中 · 後期の縅孔2列小札とΩ字型腰札–」, 『王權と武器と信仰』.

橋本達也, 2015, 「甲冑からみた蓮山洞古墳群と倭王權の交涉」, 『友情의 考古學』, 故孫明助先生追慕論文集刊行委員會.

국립김해박물관, 2002, 『한국고대의 갑옷과 투구』.

국립김해박물관, 2015, 『갑주–갑주, 전사의 상징』.

복천박물관, 2001, 『고대전사–고대전사와 무기』.

복천박물관, 2009, 『한국의 고대갑주』.